

S-Oil, RFID 무선인식 주유소 시범서비스

S-Oil은 4월21일 첨단 무선인식(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적용된 무선인식주유소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S-Oil은 서울 연희동 소재 두꺼비주유소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대전 원촌동 소재 태전주유소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계열주유소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S-Oil이 도입하는 무선인식주유소 서비스는 차량에 부착된 전용 RFID 태그를 통해 자동으로 차량 및 운전자의 정보를 판독한 후, 무선결제 및 보너스포인트 자동 적립을 지원하는 무선결제 시스템,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관리 시스템, 그리고 혼유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혼유 경보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무선결제 시스템은 고객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신용카드와 암호로 연결된 RFID 태그 판독과 고객의 비밀번호 입력으로 주유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편의성을 크게 높였으며, 신용카드 결제시 우려되는 부정사용이나 불법복제의 위험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첨단 결제 시스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주유소에서 주유 후 고객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사은품 교환용 쿠폰은 고객이 분실하기 쉽고 보관하기도 어려워 사용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무선인식주유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고객관리 관측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됨에 따라 고객은 쿠폰 보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도 100% 적립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화학저널 2008/04/22>